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5(土)	26(日)
차차 흐려짐 6 / 17℃	흐리고 비 9 / 15℃

- News**
- 고건 전 총리 광주 회견 ②
 - 반FTA 시위 불안 고조 ③
- 

- 고3 '논술 상경' 몰살 ④
- 베어백호 희망을 쏘다 ⑧

- Jeollado**
- 그 사람-고귀남 前 의원 ⑦

- Entertainment**
- '건방진 여자들'이 뜬다 ⑧
 - '화려한 휴가' 개봉 준비 ⑨

-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매생이 ⑬



포항학원 장학 5.6년 역사인 전통
광주에서 최초로 설립한 대학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 상담전화 062-770-0111 ▶ T.062-970-0001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ac.kr
▶ 상담전화 062-3051 ▶ T.062-360-5000

서남권 프로젝트 함께 간다

〈서남권 발전 구상·J프로젝트·무안기업도시〉

盧대통령, 연계추진 지시...간척지 확보 정책적 해결도

무안·목포·신안을 물류거점과 신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청와대의 '서남권 발전 구상'이 해남·영암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및 무안기업도시와 연계 추진된다. 〈관련기사 2면〉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보고회에서 이 구상과 해남·영암의 J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등 인근지역 발전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토록 지시했다.

당초 청와대의 서남권발전 구상은 무안·목포권을 단일 사업권으로 정해 J프로젝트 등과 별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남도가 통합추진을 건의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 강진·완도·진도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남도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번 구상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사업부지를 저가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양도·양수작업에 난항을 겪고있는 J프로젝트 사업지구 간척지 확보의 '정책적 해결'을 예고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박준영 전남지사는 "노 대통령이 서남권 발전구상과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지사는 또 "노 대통령은 낙후된 지역의 개

서남권 단계별 사업계획

1단계: 기반조성(2007~2009)

농산물 유통물류시범단지
조선산업클러스터
세리믹 종합지원 센터
수산 발효 식품 RIS 사업
대불 자유무역 지역 조성
남악신도시 선-시티 시범 사업
대형 복합면세 쇼핑 단지

2단계: 투자유인(2010~2013)

기초 소재 복합기공 물류센터
수출 농산물 특화 단지 확장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
부품소재 R&D 센터
창포호 레저단지/건강휴양 종합테마파크

3단계: 투자활성화(2014~2020)

농산물 유통물류단지 확장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장
다도해 해양관광 레저 단지(신안)
다도해 연도·연륙교 건설 (*)

발사업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서남권발전 종합발전 구상 보고회를 열고 2020년까지 무안·목포·신안 3개 서남권지역을 현황해권의 산업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곳에는 무안 국제공항, 목포대교, 무안~광주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물류, 신재생에너지, 관광레저, 지역특화 산업이 집중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34만명인 이 지역 인구를 57만명으로, 제조업생산과 고용을 16조원, 22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구상에 따르면 현황해권의 신산업거점 및 인구 60만명 수준의 자족적 도시권 육성을 위해 ▲서남해안권 물류거점 확보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세계적 복합관광클러스터 육성 등 4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무안국제공항, 목포신외항, 무안-광주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인프라 시설에 15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각종 정책사업에 민자와 예산 7조원을 마련, 내년부터 2020년까지 22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가칭)을 구성하고 내년 5월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2007~2011년 국가운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또 추진체계, 개발절차, 규제완화 등을 담은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방침이다.

서남권 발전구상의 추진체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총리실에 가칭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단'을 조기에 설치해 총괄 추진토록 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에서 대권투어 첫 시동을 건 고건 전 국무총리가 24일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총장로 상가를 방문, 환영하는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건, 광주서 '대권 발진'

총장로 들며 민심투어

고건 전 국무총리가 24일 최대 지지층 결집지역인 광주에서 민심투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권행보의 시동을 걸었다.

〈관련기사 2면〉

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고속열차(KTX)편으로 광주에 도착한 뒤 구 전남도청의 문화수도 홍보관을 방문, 자신의 전남지사 재직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 총장로 1가에서 2가, 지하상가로 이어지는 도심 상권을 둘러 주민들과 직접 접촉했다. 고 전 총리는 총장로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경제 형편을 물었으며 상인들은 그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날 고 전 총리가 송정역에 도착하자 500여명의 지지자가 마중을 나와 '고 건'을 연호

했고, 민심탐방 행사를 한 총장로에는 1천여명 가까운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고 전 총리는 또 30여년 전 전남도지사 재직시 즐겨 찾았던 추어탕집인 금남로 3가 '무등산 뽕뽕집'에서 오찬을 한 뒤 '광주·전남 미래와 경제' 창립대회 장소인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여성발전센터로 이동했다.

고 전 총리는 오후 2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와 전남은 도지사를 하면서 젊음과 정열을 쏟았던 지역"이라며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나를 성장시켜준 어머니 품과 같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빛고를 광주·전남은 민족자존의 빛이요, 양심의 빛,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의 빛"이라고 강조하며 광주를 추켜세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수입 쇠고기서 뺏조각 발견

농림부, 반송·폐기처분

지난달 30일 수입이 재개된후 국내에 처음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뺏조각이 발견, 불합격 판정과 함께 반송 폐기 처분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는 지난달 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8.9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뺏조각이 발견된

에 따라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수입 물량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고 미국 해당 농장의 수입장 승인 역시 취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발견된 뺏조각이 광우병 위험물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ilee@

이승철 광주공연
12월16일(토) 오후 7:30 광주예술극장
광주일보사 (062)220-0541, 1644-1216

"불법·폭력시위 관용없다"

정부, 도심집회 엄격 제한키로

정부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폭력적인 반(反)FTA집회를 주도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폭력사태를 빚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집회 등과 관련, 2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성호 법무, 박홍수 농림, 이용섭 행정, 이상수 노동부 장관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담화문에서 "불법·폭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앞으로 폭력시위나 교통혼잡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집회는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호 법무 장관은 담화문 발표 후 "불법행위나 교통혼잡 야기 등의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에는 집회의 성격이나 영향 등을 참고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추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24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4층에 있는 '한미FTA 지지 광주전남운동본부' 사무실과 광주시 북구 신안동 대성빌딩 3층에 있는 '희망연대' 사무실 등 전국 5개 지역 단체 사무실 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광주지역 2개 단체 사무실에서 3박스 분량의 문서와 컴퓨터 9대, 플래카드·헛불·각목 등 시위용품 등을 수거했으나, 총포는 없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세계스타·세계보청기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롭게 두뇌개발 개념으로
세계 첨단보청기 기술에 집중하라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계스타·세계보청기